

복구, 혼신의 노력...코로나 확산세 잡았다

광주 절반, 확진자 238명 발생 방역만 2만 4000여회 실시 폭증 기세 최근 감소세 전환 전담팀 꾸려 격리자 모니터링



최근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북구자율방재단, 상인회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 제공>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혼신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구청내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방역활동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가 뚜렷한 감소세로 전환된 것도 이러한 북구의 노력이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2월 코로나19 첫 발생 후 17개 부서에서 총 2만 4000여회의 방역을 실시했다.

이는 하루 평균 100회 꼴로 휴일도 반반한 채 실시하는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구는 20일 현재까지 2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광주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485명의 49%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북구는 북구의 확진자 비중이 광주시 확진자의 절반에 가까운 점 때문에 '코로나19 방역 중점 관리지역'까지 지정됐다.

북구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신천지를 비롯해 서울 사랑

제일교회와 연관한 광주사랑교회, 성림침례교회 등 대형 종교시설이 밀집해 있는 탓에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북구는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최일선에 있다는 생각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황에서도 휴일까지 반납한 채 하루 24시간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지켜내고 있다. 북구내 선별진료소와 코로나 확진자가 지나간 동선에는 집중적인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

선별진료소 등 4곳에는 651회의 방역이 실시됐고, 확진자가 지나간 것으로 파악된 곳에도 860여회가 넘는 방역을 실시하

면서 폭넓은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운데 특정연령대인 고령자들의 확진자가 많다는 점에도 주목, 북구내 30개의 노인 요양시설에 현재까지 5716회의 방역을 집중하고 있다.

또 감염에 취약한 장애인 생활시설 17곳과 장애인 보호시설·재활시설 17곳 등에도 총 5600여회의 방역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지침보다 폭 넓은 방역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청의 모든 부서가 방역에 앞장서고 있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공공시설인 공중화장실과 공원내 운동기구,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방역도 빠

놓지 않았다. 또 구청내 방문이 많은 차량 등록민원실도 방역도 놓치지 않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각화어린이집 등 18곳) 청소년 수련관(광주 북구 청소년수련관 등)은 물론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전통시장(말바우·운암·두암·동부 시장) 대형마트 등에도 총 1500회가 넘는 방역작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최근 시장방역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전통시장은 더욱 철저한 방역을 실시했다.

또 주변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시장을 방문했거나 증상이 있는 주민 1757명(상인 898명·방문자 859명)에 대해선 무료로 진단 검사하면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시장상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북구는 현재까지 북구내 6538명의 자가 격리자를 지원해 6071명이 격리해제됐고, 아직 자가격리중인 467명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면서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자가격리자 전담반을 꾸려 자가격리자와 일대일로 지원을 하면서 햇반·라면·참치 등의 생필품을 제공했다. 또 자가격리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생키트 등을 긴급배송해왔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침체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와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광주시 서구 마북동 공사 본사에서 '적극적 고용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녀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업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문화 재능나눔 프리마켓

25일부터 온·오프 강좌·행사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에게 일상의 활력을 선사하기 위해 참여형 문화행사인 '재능나눔 프리마켓'을 연다.

'소셜캠퍼스 온(溫) 광주'와 공동으로 펼치는 이번 재능나눔 프리마켓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기업 등이 참여해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한다.

온라인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소셜캠퍼스 온 광주와 공사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스탠다드 플랜트 체험, 오가닉 면 마스크 만들기, 목재로봇정리함 만들기 등 가정에서 손쉽게 체험가능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꽃송편 만들기, 커피 핸드드립, 플라워 클래스 등 8회의 오프라인 강의로 지친 시민에게 일상의 활력을 위해 모든 강의는 10명까지의 소규모 예약제로 진행된다.

온라인 강좌 체험키트 신청 및 오프라인 강좌 참여 예약은 공사 블로그 또는 사회적경제조합 살림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온라인 체험키트는 소셜캠퍼스 사무실에서 방문 수령해야 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윤진보 사장은 "길어지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에게 힘이 되기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업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청소년 시설 5곳 민간위탁 운영단체 모집

3년 이상 청소년 활동 실적

광주시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청소년시설 5곳을 운영할 민간 단체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위탁 대상은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시화정청소년문화의집, 광주시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이다.

운영을 맡는 단체는 ▲청소년 관련 각종 상담 및 심리검사 ▲청소년활동요구조사,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발굴,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인성수련활동, 진로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청소년단체(법인)로,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사업 실적 이 있고, 광주시에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여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청소년기본법' 제64조 또는 제66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3조 또는 제45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또는 제72조의 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법인)이거나 법인(단체)대표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없다.

운영 기관은 청소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신청 법인(단체)의 사업수행 능력·전문성 등을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순속수 광주시 청년청소년과장은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 엄정한 심사·선정으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설운영 능력 등 경험과 역량,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단체(법인)가 선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취약계층 리모델링 재능기부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부 리모델링 재능기부 행사를 펼쳤다.

20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영구 임대 아파트인 우산 빛어울체에 거주중인 취약계층 2세대에 대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공사와 재능기부에 나선 (주)아르인 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공

사 임직원, 재능기부 업체 직원, 입주민이 동참해 도배 장판과 등기구·수전 설비 등을 교체했다.

광주도시공사 노경수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내부 개선공사가 시급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2021년에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세대내부 환경개선 공사'를 중점 추진해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광주시, 아동학대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나서

조사업무 전담공무원 25명 배치

광주시가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견사례는 2017년 957건에서 지난해 1099건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하면서 현장조사 거부 및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자치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5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계획 수립,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12월까지 북구 1명, 광산구 6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총 25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5개 자치구에 배치 완료해 피해아동 보호 및 공격 관

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예방을 위해 사례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광주시는 또 지난 7월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과 관련, 광역단위 현장점검 및 상호 협의를 위해 시, 교육청,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 점검을 강구할 계획이다.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올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 초기단계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고 전담공무원 체계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교육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